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38호

창조절 셋째 주일

2020년 9월 20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온 누리에 창조의 역사가 | 김호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주님을 찬양하나이다(G. Correte)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는 일어서서)

78장(저 높고 푸른 하늘과) 다함께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위에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42:5), 우리가 함께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사 65:18),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시 89:12).

회 중: 아멘.

오르가니스트

목 사: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회 중: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목 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회 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목 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회 중: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시 105:1-7).

90장(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함께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요일 1:9).

응답송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6:2-5** **1부: 이강송 집사**
2부: 김현우 집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 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빌립보서 1:21-30** **1부: 채해림 집사**
2부: 윤가운 집사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0:1-16 **목사**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아홉 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다섯 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 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

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기도

응답송

특송

설교

기도

목사

심정기 장로

오르가니스트

나 주를 찬양하리라(Philip Landgrave) 이예량 교우

“정의와 공의” 채수일 목사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봉헌기도

*보냄찬송

*축도

*송영

후주

321장(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함께

목사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목사

오르가니스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L. Bourgois)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장례: 故 이석순 목사(향년 84세 / 이성준 집사 부친 · 김덕선 집사 시부, 이은지 산우 조부, 9월 8일[화] 소천, 9월 10일[목] 발인)

▶귀국: 김송현 교우(8월 24일[월], 미국 보스턴 버클리음대 졸업)

2. 다음 주일(9월 27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김남강 장로	1부	윤경하 집사, 정연희 집사	2부	김문식 집사 · 공순복 권사

특별봉헌 9월 6일

감사헌금

김동준(8월 감사),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영걸(감사), 김정애(감사), 노순애(2019년 절기, 감사), 박소진(감사, 십일조), 이가희(감사), 이강송 · 채해림(십일조), 이승렬 · 김만시(아버지 장례 감사), 이종인 · 이연숙(감사), 이주한(감사), 최영덕(감사), 채수일 · 김경숙(범사, 휴가 감사)

지정헌금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김형규, 박성준 · 김성, 박성지, 박재준 · 박소영, 우관호, 정대제 · 김숙영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창세기 2:23	서로 도우며 살아요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창세기 2:18-22	서로 도우며 살아요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창세기 2:18-23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창세기 2:18-25	온전한 창조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예배, 수요 성경인물 탐구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다음 주일 말씀

9월 27일(창조절 넷째 주일)

성 경: 구 약(출애굽기 17:1-7)

서신서(빌립보서 2:1-13)

복음서(마태복음서 21:23-32)

설 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채수일 목사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1.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2.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 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3. 엄숙한 참목 속에서 못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신이 대주재 성부 하나님 아멘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 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후렴)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기록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